

# 코로나 시대에 한글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“삶”의 질을 높여 드립니다.

## 1. “비문해자”라고 들어보셨나요?

“비문해자”란 ‘글을 전혀 읽고 쓰지 못하거나, 가능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’을 말합니다.

그런데 우리 봉화의 비문해 어르신들의 비율이 전국에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

## 2. 한글 모르는 비문해 어르신은 부끄러워 하십니다.

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배움의 기회를 못가지신 어르신들은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오셨습니다.

한글을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나길 원치 않으셨기에 숨기고 살아오신 것입니다.

## 3. 코로나 상황에서는 문해능력이 매우 필요합니다.

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혼자 보내야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.

어르신들이 고독감과 우울감에 젖기 쉬운 상황입니다.

즐거운 집콕 생활을 위해서는 한글을 깨우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## 4. 찾아가는 가정 방문 한글 선생님(봉사자)이 필요합니다.

코로나로 인해 여러사람이 함께 모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, 한글을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나길 불편해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한글을 지도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.

## 5. 문해교육사 자격 취득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

한글 지도 봉사를 해주실 선생님을 모집하고 나면, 한글을 잘 가르치실 수 있도록 문해교육사(3급) 자격취득 양성 과정을 이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.

## 6. 봉화에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이 한 분도 없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

한글을 깨우치고 나면 “삶”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“삶”의 수준이 높아지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고, 당당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.

우울과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, 두렵지 않은 일상생활을 통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.

## 7. 봉화군노인복지관과 함께 해 주십시오.

